



2023 인문콘텐츠학회 동계학술대회, 2023.12.2. 목포대학교

디지털 큐레이션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연구 방법

김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저작물(PPT)의 인용 표시 방법:

김현, "디지털 큐레이션: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 연구 방법",
2023 인문콘텐츠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초강연, 2023. 12. 2. 목포대학교





1.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 연구의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큐레이션

3.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 사례

4. 디지털 큐레이션과 미래 인문학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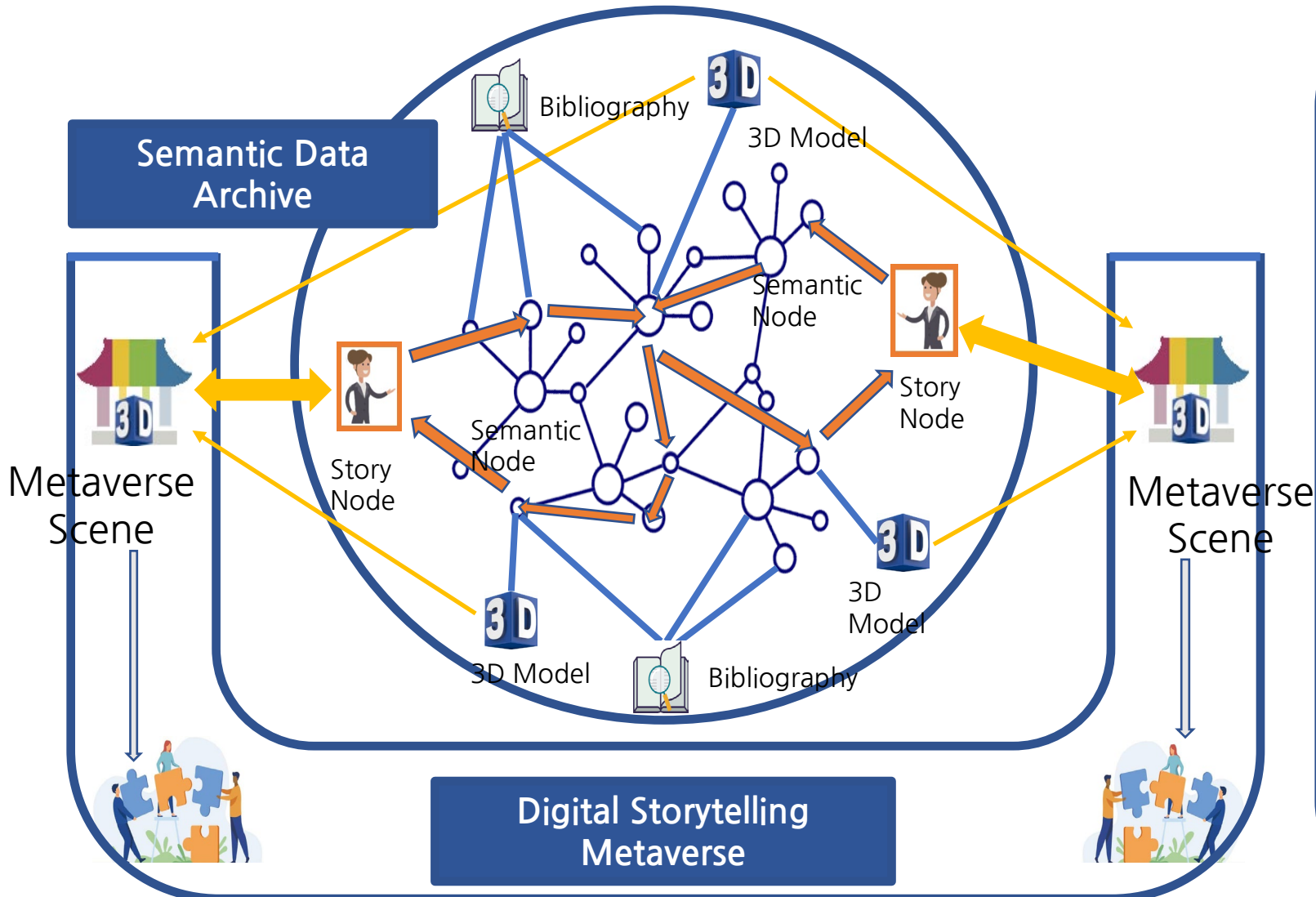


디지털 가상공간은 인간들이 해오던 문화·예술활동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양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그러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만들고, 인간은 그것을 즐기고..... 이것이 미래의 문화·예술일까요?

문화·예술의 생명은 창의적 활동입니다. 기계가 만든 것을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미래의 문화·예술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시대에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문학은 모든 문화·예술 활동의 근저에서 작가와 수용자의 통찰력과 창의성, 그리고 공감의 능력을 일으키는 정신적 자산입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인문학적 탐구가 인공지능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보다 창의적인 인문정신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입니다.

미래의 인문학 교실: 메타버스+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시맨틱 데이터로 전환되어서 메타버스의 방문자들에게 의해 창의적인 응용활동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인문지식의 프로슈밍(prosuming) 모델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3차원 가상현실로 재현한 메타버스가 '잠시 즐기다 가는 디지털 놀이공원'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인문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인문학 교실'이 될 수 있게 하는 '인문지식 플랫폼'에 대한 구상입니다.

미래의 인문학 교실: 메타버스+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 메타버스(Metaverse):

-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체험하며, 교류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가상 세계
- 메타버스(Metaverse)가 가상세계에 관한 기존 개념들(VR, AR, MR 등)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그 세계가 '공급자'→'소비자'의 단방향 세계가 아니라 '체험하고 교류하고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Consumer)들에 의해 진화하는 쌍방향 세계' 또는 '그러한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플랫폼)'이라는 점.

※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Semantic Data Archive):

- 대상 객체의 개별적인 속성 정보뿐 아니라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기록함으로써, 대상 정보의 의미적 맥락을 표시할 수 있게 한 데이터베이스.
- 인물, 장소, 사건, 문헌, 개념 등의 데이터를 개별 정보요소로 파악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임으로써 그 요소와 맥락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가능.
-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는 메타버스가 실제적인 스토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요건
- 인문학 교육·연구 활동으로서의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의 산출물이자, 새로운 교육과 연구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지식 공유 환경



1.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 연구의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큐레이션

3.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 사례

4. 디지털 큐레이션과 미래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계에서 논의되는 '근현대 인문학의 과오에 대한 반성'

확장된 학술 활동으로서의 큐레이션

디지털 인문학자들은 큐레이션을 미래 인문학의 중심적인 특징으로 인식한다.

근대 대학이 큐레이션을 이차적 보조적 역할로 강등시키고 큐레이터를 박물관, 아카이브 및 도서관으로 추방하면서 학문에서 분리시켰던 반면, 디지털 인문학 혁명은 연구와 교육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재형성하도록 촉진한다. 디지털 인문학은 학자를 큐레이터로, 큐레이터를 학자로 재구성하고, 이로 인한 가능성과 수요의 확장을 통해 학문 활동에 다시 활기를 북돋으며 박물관, 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학술적 사명을 재개하려한다.

데이터 시대, '자료'와 '지식'의 새로운 관계

- 아날로그 시대에는 박물관의 큐레이션과 학자들의 강의·저술을 다른 일로 취급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박물관의 수장고와 전시실, 대학의 연구실과 강의실은 서로 다른 독립된 공간이었고, 그 각각의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전문가로 취급되었다. 지식의 성격과 내용은 유관한 것일지라도, 들여다보는 대상물이 다르면 연구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일은 서로 다른 일이었다. 고객들도 그들의 분업 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유물을 보기 위해서는 박물관으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록관으로, 그 증거들을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의 강의실로 가야 했다.
- 하지만 그 모든 지적 감성적 경험의 세계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대의 지식 고객들은 박물관의 유물이든, 아카이브의 문헌기록이든, 그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탐구한 인문학자들의 논술이든, 이 모든 것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콘텐츠로 접하는 데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 세계에서는 박물관과 강의실이 분리된 공간일 필요가 없다. 유물의 형상과 색체를 보이는 이미지 자료와 그것의 제작기법이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연구논문이 다 같이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는 곳에서 두 세계를 넘나드는 행위는 한 번의 마우스 클릭이면 족하다.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공부 방법

❖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이란?

-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자기주도적 지식의 탐구와 표현
-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자, 전통적인 인문지식을 디지털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방법.

이성적인 이해나 감성적인 체험의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했을 때, 그 발견을 홀로 즐기기보다는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을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화적 활동의 저변에 놓인 사고이다. 큐레이터의 큐레이션이나 인문학자들의 저술 활동은 모두 자신이 얻은 앎과 느낌을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아울러 그 활동들은 단편적인 사물이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 요소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맥락이 있는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잘 이해하고 더 많이 공감하게 하려 하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그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역사적인 유물이나 미술작품과 같은 유형의 실물 위주인 경우 그 이야기 구성의 행위를 큐레이션이라고 불렀고, 언어로 기술된 정보와 지식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 '저술'이나 '강의' 등의 이름으로 차별화 했을 뿐이다. *

* 김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2020. 3. 국학진흥원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내용

❖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내용

- 전통적인 인문학 공부와 내용적으로 상응하는 스몰 데이터(Small Data)의 편찬
- 이것이 다수의 협업 공간에서 빅 데이터(Big Data)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모델(온톨로지, Ontology)의 설계
- 데이터로 전환된 인문지식의 정확성과 명시성을 검증하는 데이터 시각화
- 학술적 이론과 아카이브의 유물, 현장의 활동을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융합하고 감성적으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하이퍼미디어 콘텐츠 편찬 ➡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의 생성과 확장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의 지향점

❖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의 목표

- '의미있는' 데이터의 세계에서 자신의 흥미거리를 발견하고, 호기심을 키워가며,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능력의 배양
- 디지털 원어민 세대의 인문학 교육·연구자, 데이터 기반 지식 세계의 큐레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
- 인공지능과 동행하는 미래 인문학을 위한 준비





1.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 연구의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큐레이션

3.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 사례

4. 디지털 큐레이션과 미래 인문학

한양도성 타임머신 빅데이터 편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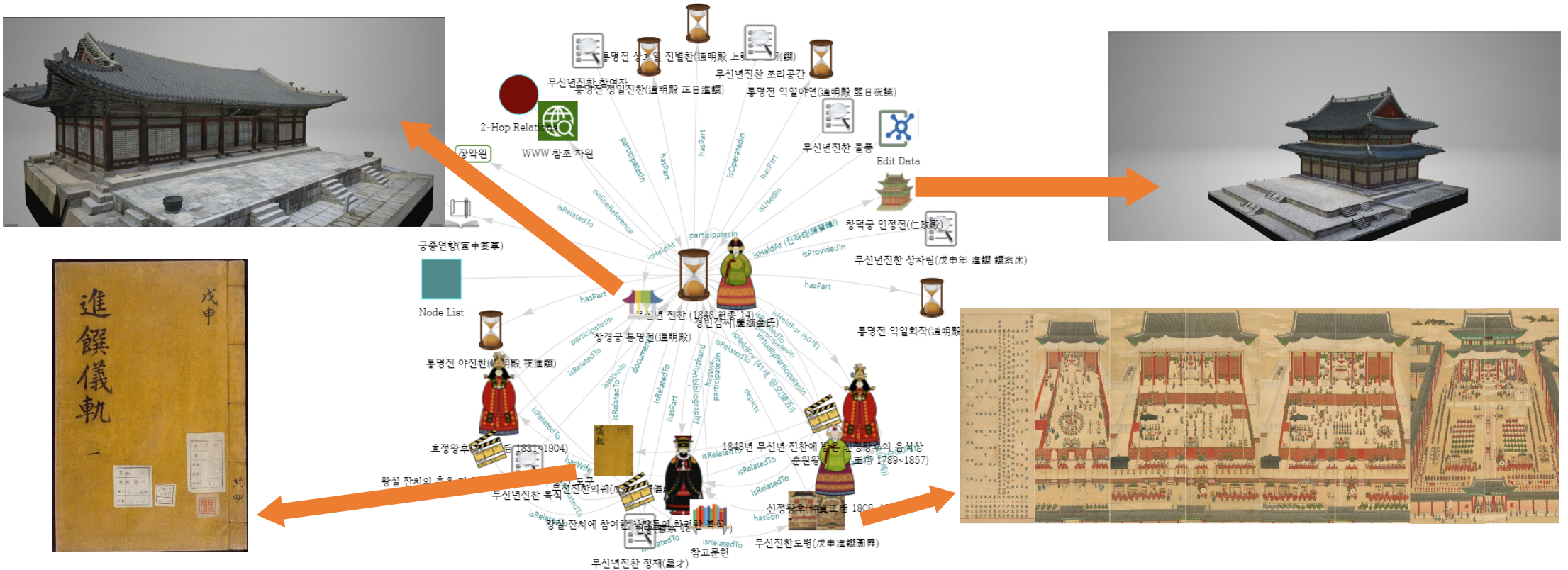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을 통해 3D 모델로 제작되는 고건축물과 관련이 있는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 및 대한제국기의 왕실문화와 외교관계, 도시문화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사·추출하여 데이터화 하고, 데이터 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상 자료의 내용을 분석·응용·확장할 수 있는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현.



*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 (2020~2022): 정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과제로 문화재청이 주도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업. 한양도성 권역 내 600년 조선 문화유산의 '실감 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어셋 개발 및 지식정보 자원 개발 (문화유산 실물 3D 모델링 +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한양도성 타임머신 데이터 아카이브 구현 예시

❖ 궁중연향 ⇒ 무신년진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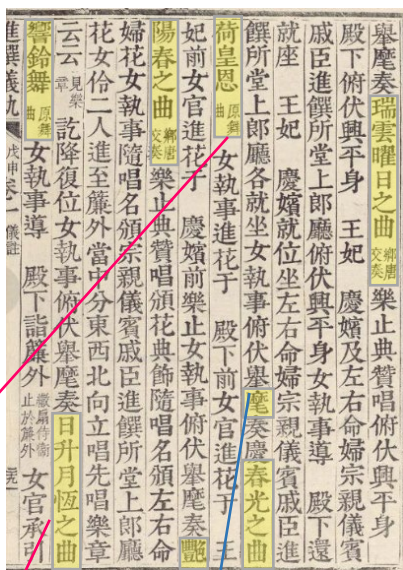


* 1848년(무신년), 한양의 창경궁에서 헌종의 할머니 순원왕후(純元王后, 순조비, 1834-1849)와 어머니 신정왕후(神貞王后, 효명세자빈, 1789-1857)의 장수를 기원하는 잔치가 열렸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선왕실 의궤(『戊申進饌儀軌』)에 기록되어 있고, 잔치의 장면들은 병풍 그림(「戊申進饌圖屏」)에 묘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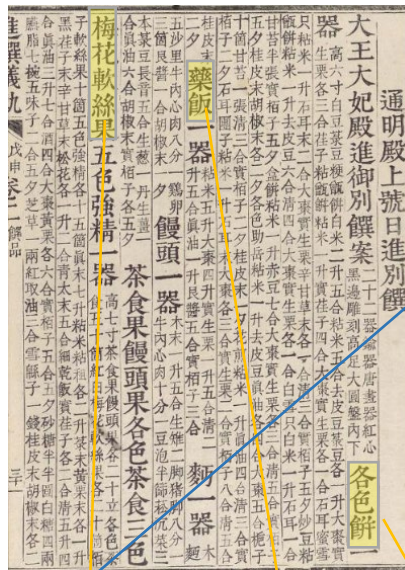
지식자원 조사/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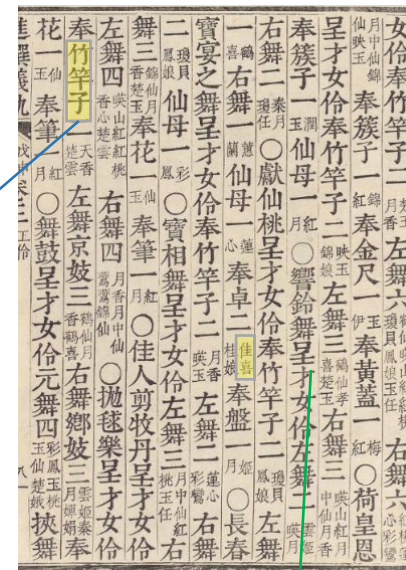
진찬의궤(무신년:1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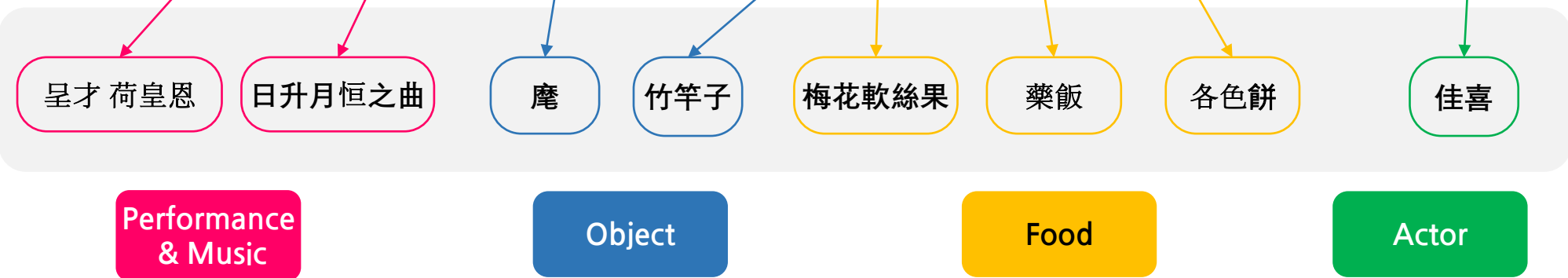
卷一「儀注」、「樂章」
음악, 악장, 정재, 공연도구



卷二「餐品」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상차림



卷三「工伶」
정재여령 등의 공령



呈才 荷皇恩

日升月恒之曲

麾

竹竿子

梅花軟絲果

藥飯

各色餅

佳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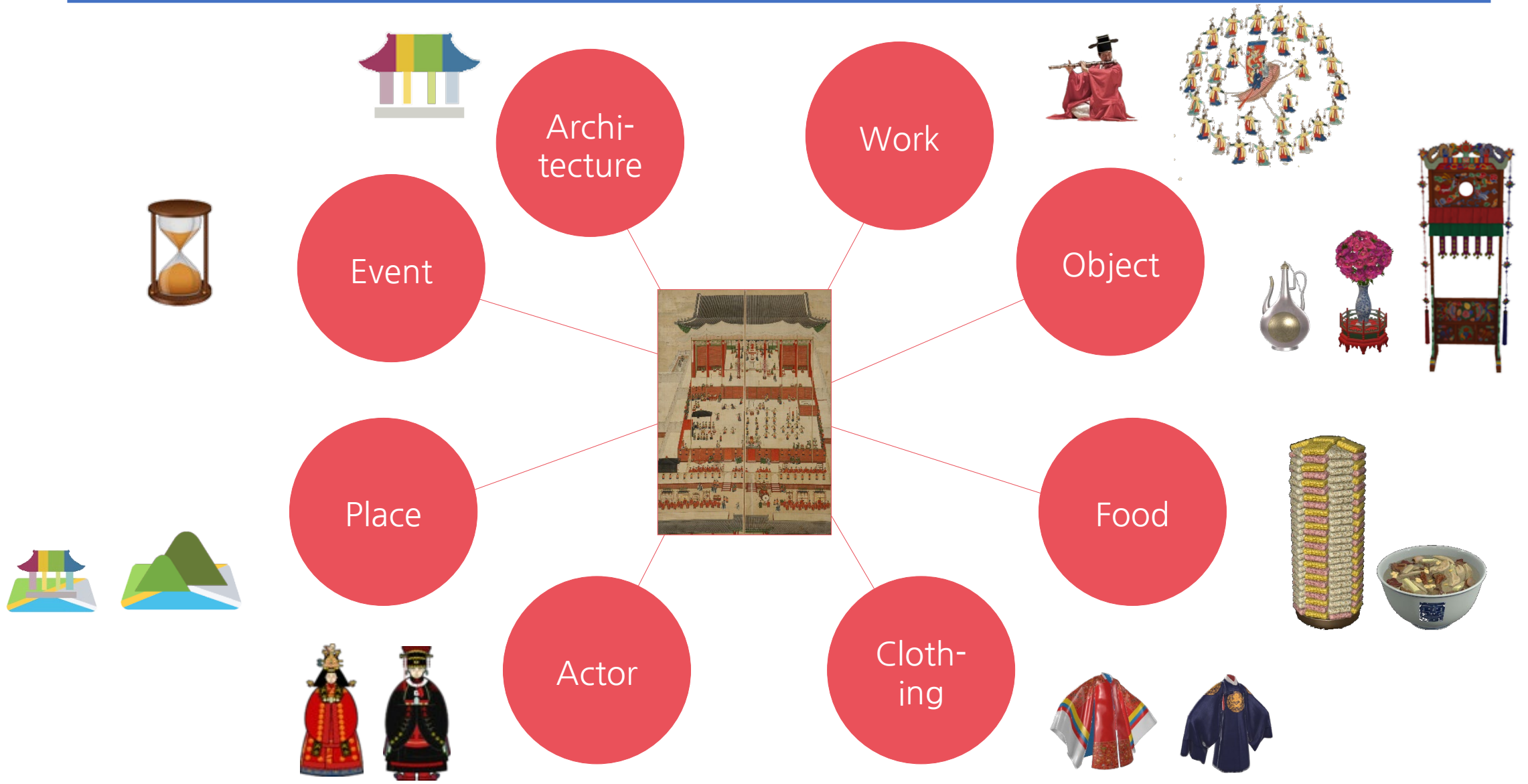
Performance & Music

Ob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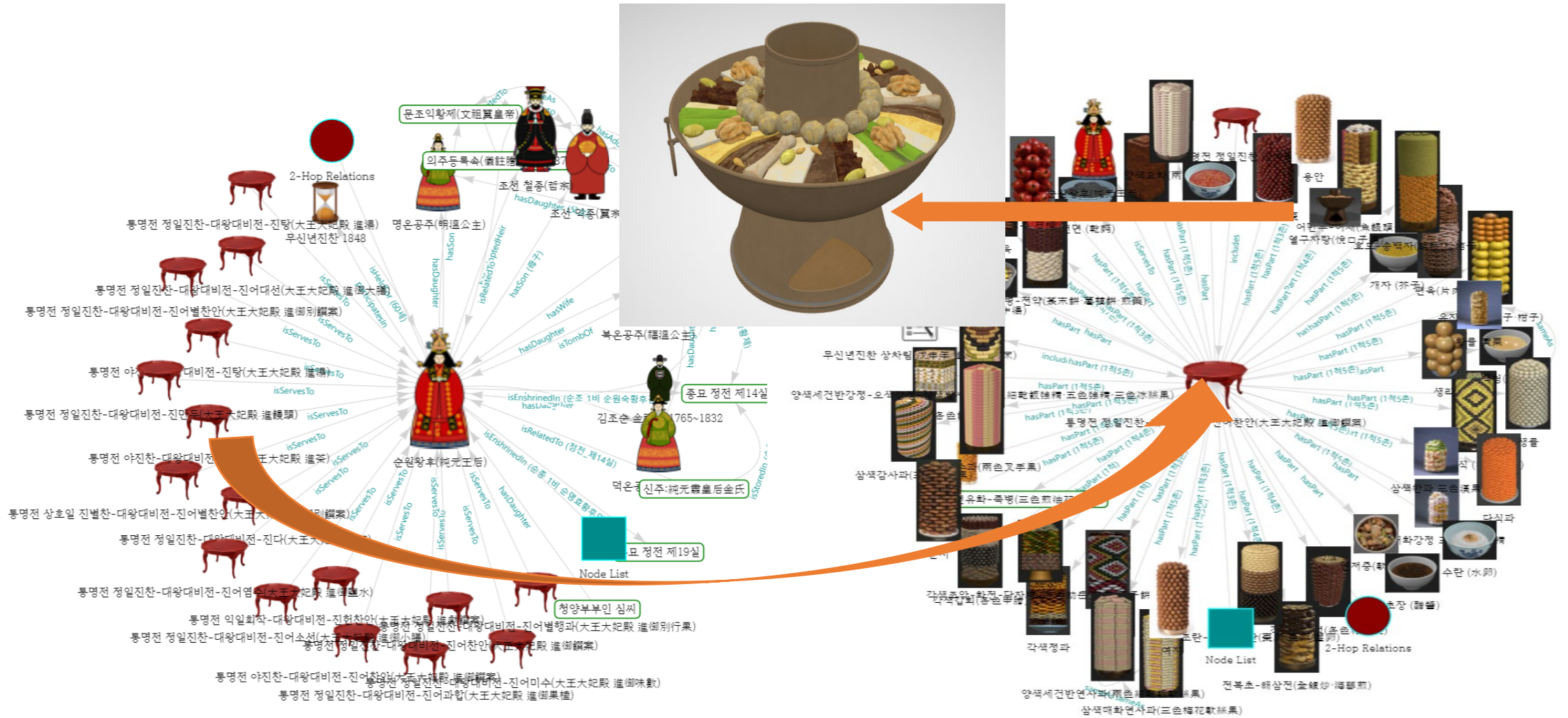
Food

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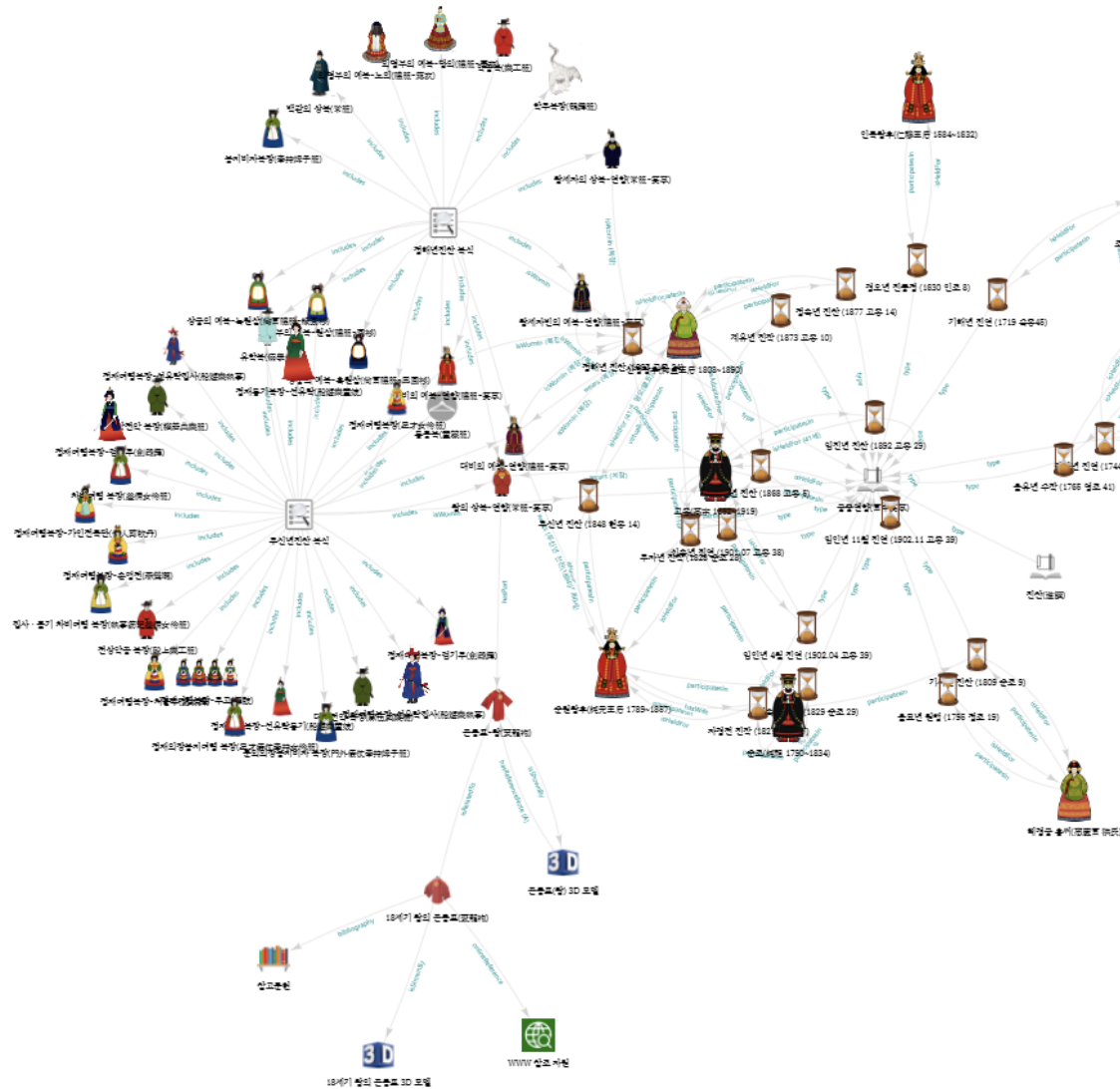
데이터 구조 설계 (Class / Relation)



시맨틱 데이터 구현 예시(飲食,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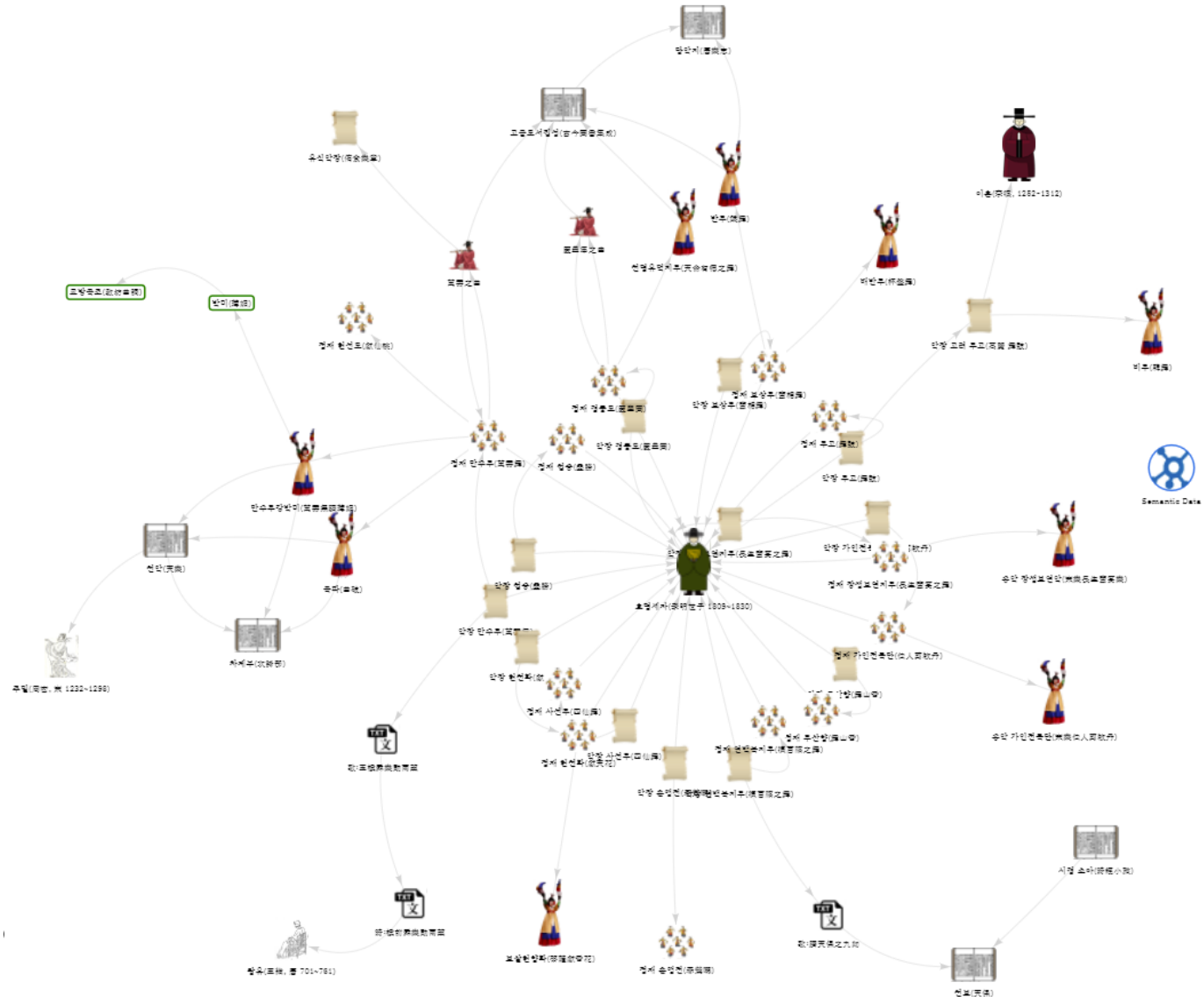
시맨틱 데이터 구현 예시(服飾, Clo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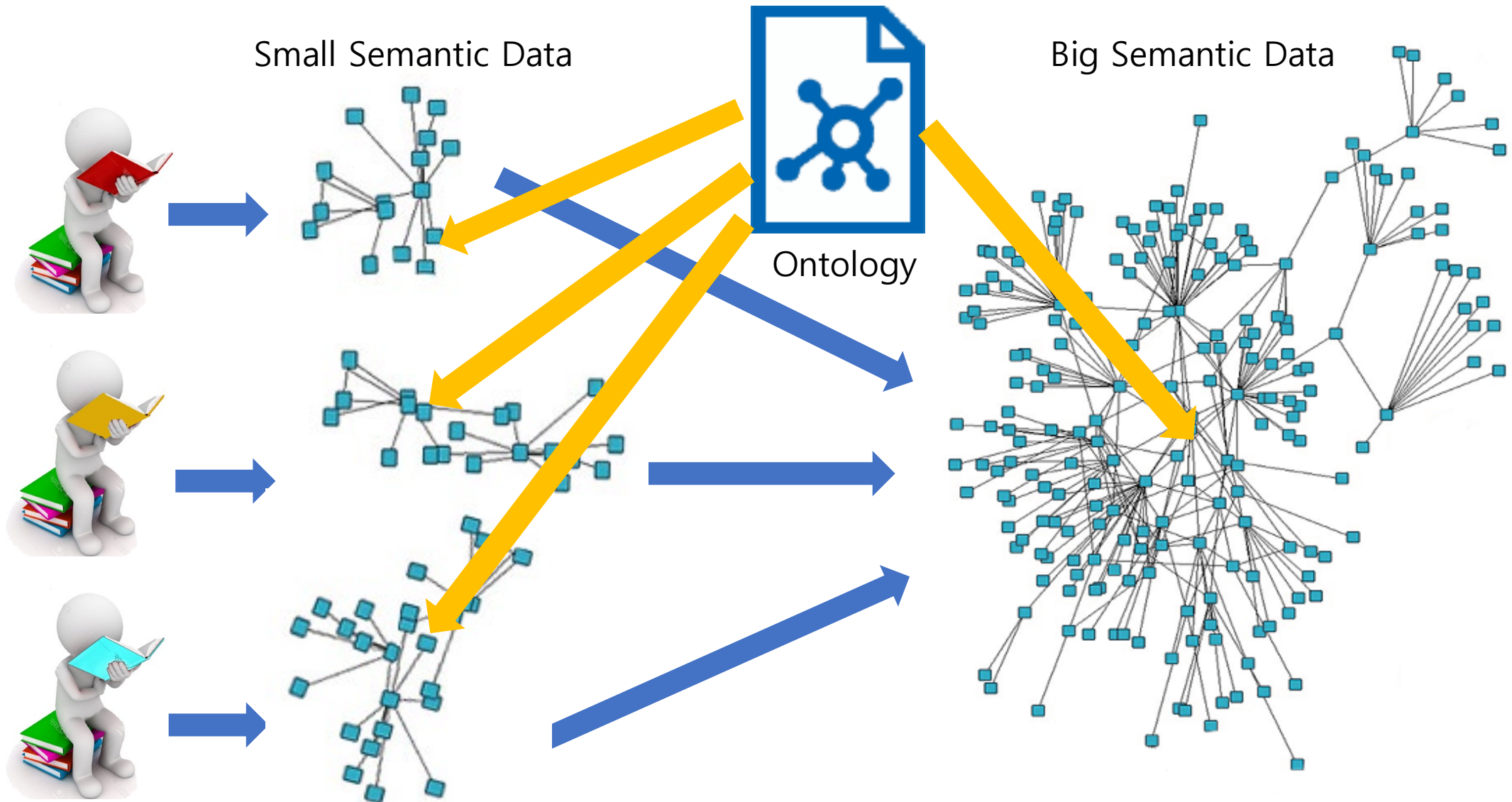
효명세자의 창작: 정재(呈才)와 악장(樂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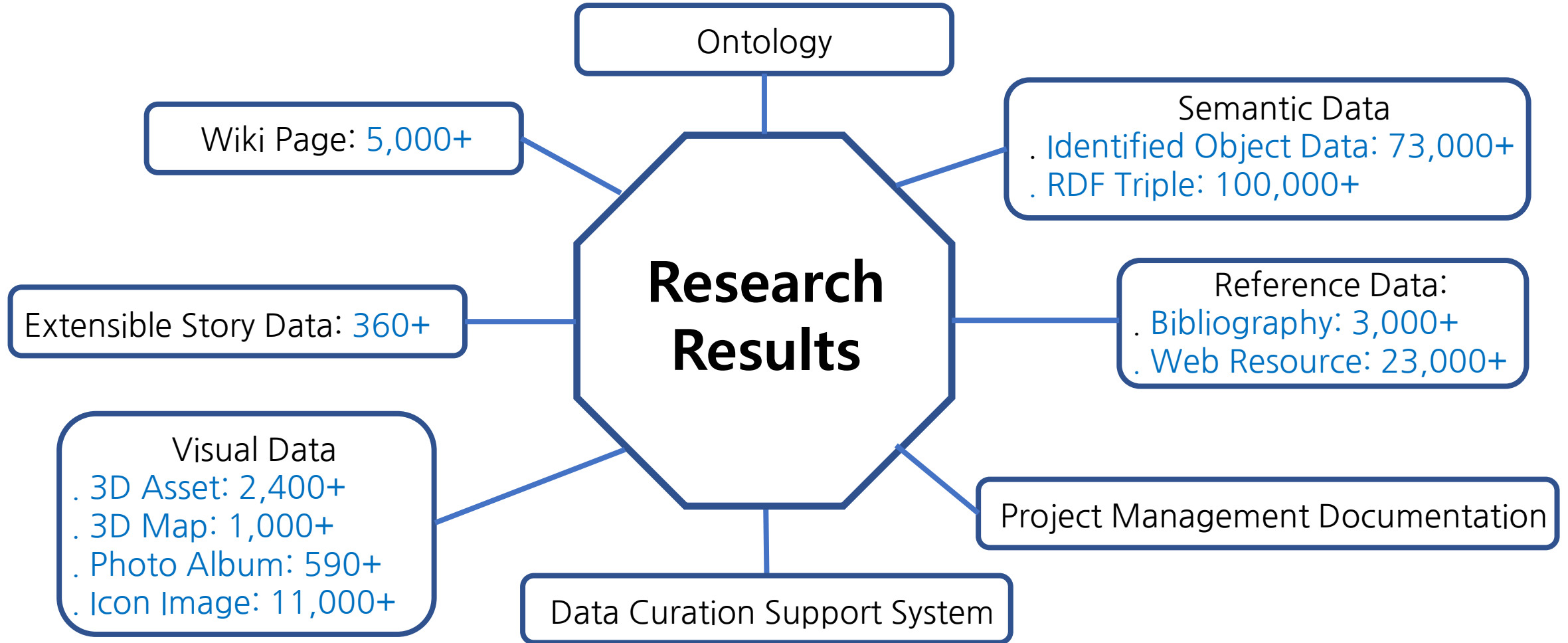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41)



온톨로지 (Ontology) 기반의 협업적 연구



한양도성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지속적 협업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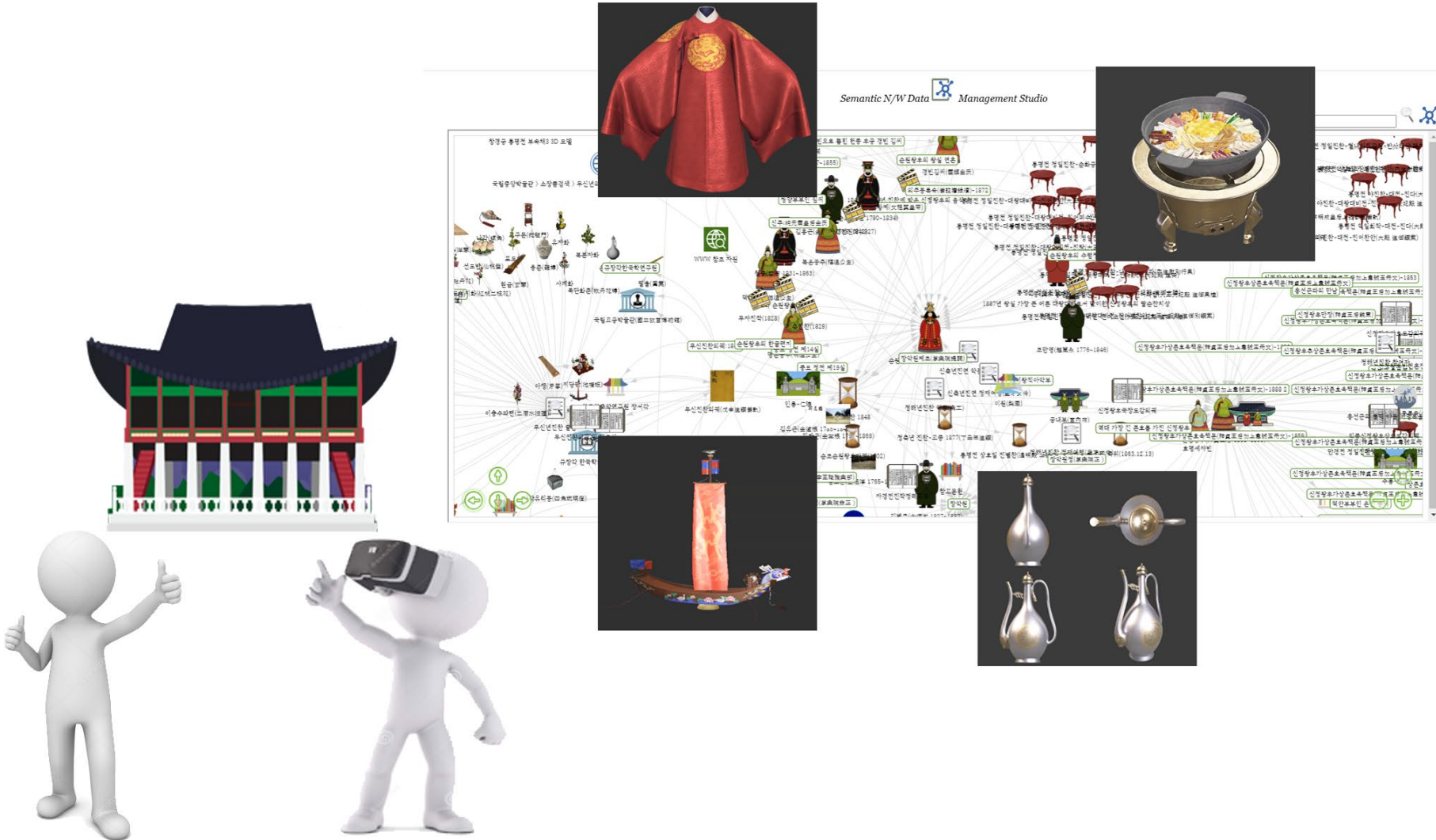
1.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 연구의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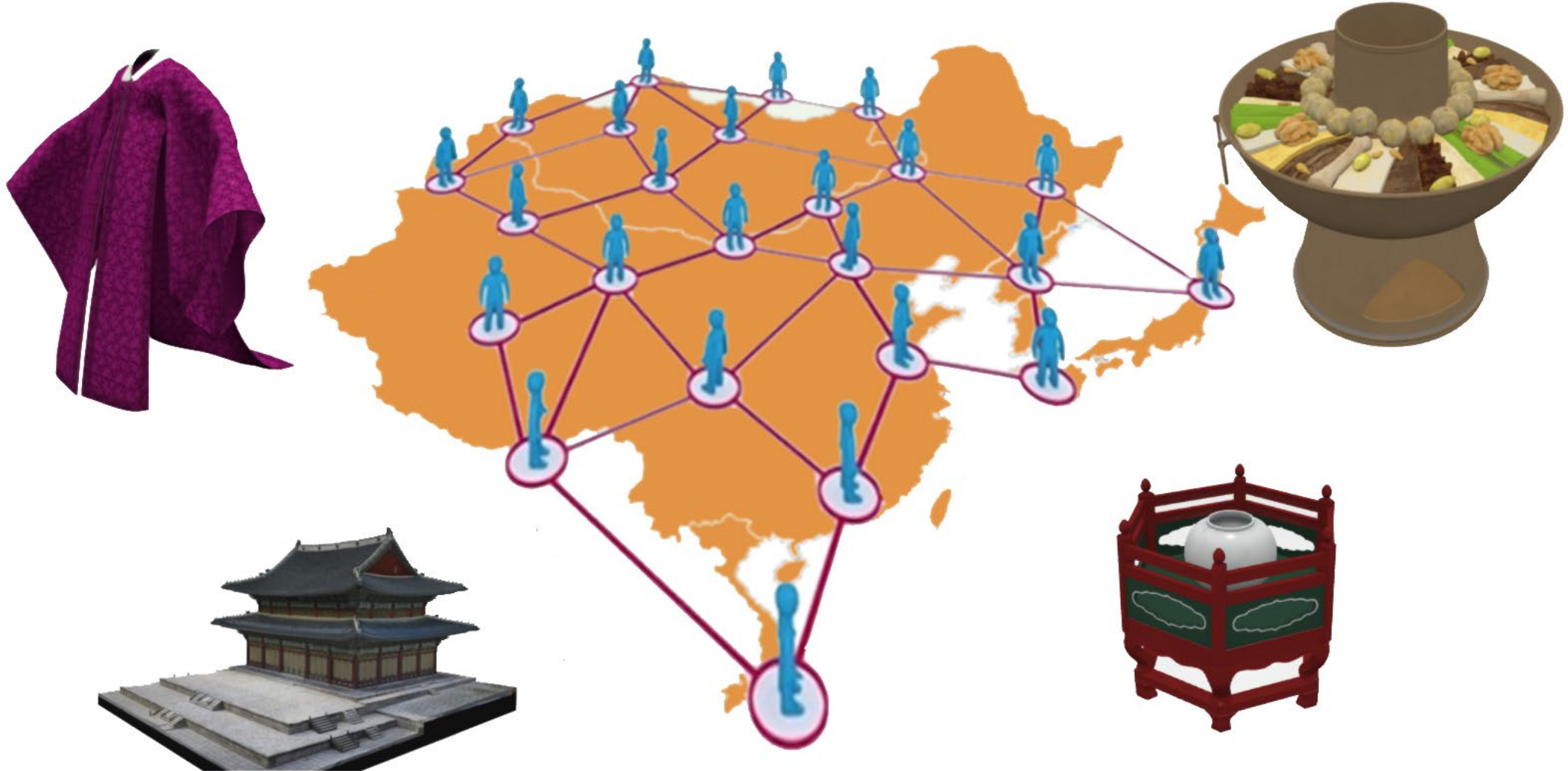
3.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 사례

4. 디지털 큐레이션과 미래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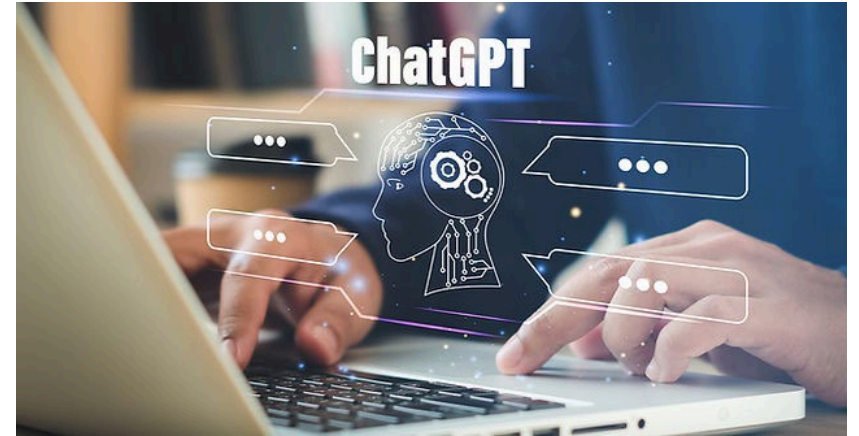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원어민을 위한 인문학 교육 방법



전공 / 지역의 벽을 넘어서는 소통의 인문학



인공지능과 동행하는 '미래 인문학'을 위한 준비



- 2022년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일 년도 안 돼 더욱 고도화된 모습을 보인 'Chat GPT'는 가까운 미래에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교육과 연구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 인공지능은 이미 방대한 양의 인문학 텍스트를 학습하였고, 그 내용과 관련한 인간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 우리는 인공지능의 박식함과 말주변에 놀라면서, 한 편으로 그 대답 속의 모호성과 부정확한 오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Chat GPT와의 대화



You

논어의 "子曰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 대해 조선의 유학자 다산 정약용은 "學所以知也. 習所以行也. 後世之學, 學而不習, 所以無可悅也." (정약용(丁若鏞),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라고 풀이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정약용의 주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ChatGPT

논어의 구절 "子曰學而時習之, 不亦說乎!"는 한국어로 "공자가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것이 기쁘지 않겠는가!'"로 번역됩니다. 이는 배움의 중요성과 배운 것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며 익히는 것의 기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조선의 유학자 다산 정약용은 이 구절에 대해 "學所以知也. 習所以行也. 後世之學, 學而不習, 所以無可悅也."라고 풀이하셨습니다. 이는 한국어로 "배움은 앎을 위한 것이고, 연습은 행하기 위한 것이다. 후세의 학문은 배우기만 하고 연습하지 않음으로써 기쁨이 없게 되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주장의 핵심은 배움과 실천의 중요한 연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연습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후세의 학자들이 이 연습의 부분을 소홀히 하여, 진정한 학문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학문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Chat GPT와의 대화

 You

조선왕실의 인물 순원왕후와 신정왕후의 관계에 대해 알려 주세요.

 ChatGPT

순원왕후(順元王后, 1555-1637)와 신정왕후(神貞王后, 1546-1592)는 조선시대의 왕실 인물들로,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순원왕후는 선조의 두 번째 왕비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김씨(金氏)이며, 인종의 딸입니다. 순원왕후는 선조와의 결혼을 통해 왕비가 되었고, 나중에 선조가 사망한 후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신정왕후는 선조의 첫 번째 왕비로, 본명은 류씨(柳氏)입니다. 신정왕후는 선조와의 결혼을 통해 조선의 왕비가 되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함께 의주로 피난 가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조선 중기 왕실의 중요한 인물들로, 특히 순원왕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어려운 시기에 왕실과 나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정왕후는 선조와의 결혼 생활 동안 여러 차례의 정치적 혼란과 난국을 겪었으며, 특히 임진왜란의 발발과 그로 인한 피난 중에 사망함으로써 조선 왕실의 역사에서 비극적인 인물로 기억됩니다.



4. 디지털 큐레이션과 미래 인문학



K-Heritage Interpreter

한양도성 타임머신 시맨틱 데이터를 학습한 Chat GPT

- ChatGPT
- K-Heritage Interpreter
- Explore

Yesterday

- Korean Heritage Q&A Ontology
- Royal Feast of 1848
- Key Figures in 1848
- Korean Heritage Interpreter Welc

Previous 7 Days

- Joseon Royal Feast Locations
- Royal Feast Participants in 1848
- Royal Feast in 1848
- Royal Feast in 1848: Participants
- User Request: Summarize convers

Hyeon Kim

K-Heritage Interpreter ▾



K-Heritage Interpreter

Korean history expert with in-depth insights based on 'MusinJinchan Ontology'

By KIM HYEON

Tell me about the Royal Feast of 1848.

What are key places of the Royal Feast of 1848.

Who were key figures in the Royal Feast of 1848.

What are key documents telling about Royal Feast of 1...

Message K-Heritage Interpreter...



ChatGPT can make mistakes. Consider checking important information.





K-Heritage Interpreter

You

무신진찬 온톨로지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1. 1848년 왕실의 잔치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K-Heritage Interpreter

무신진찬 온톨로지에 따르면, 1848년 왕실의 잔치에 실제로 참여한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원왕후 (Queen Sunwon) - 순조의 왕비이자 헌종의 할머니로서, 왕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잔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 헌종 (King Heonjong) - 잔치가 열린 당시 조선의 군주였으며, 잔치의 중심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 효정왕후 (Queen Hyojeong) - 헌종의 왕비로서, 그녀의 참여는 왕실의 중요한 일부였을 것입니다.
- 경빈 김씨 (Lady Gyeongbin Kim) - 헌종의 후궁으로서, 그녀의 참여는 조선 왕실의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조선 왕조 왕실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1848년 왕실의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당시 사회 및 정치적 맥락에서 잔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K-Heritage Interpreter



You

무신진찬 온톨로지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2. 신정왕후는 1848년 왕실의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였습니까?



K-Heritage Interpreter

신정왕후는 1848년 왕실의 잔치에 '가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신진찬 온톨로지에 따르면, 그녀는 실제로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인정받고 존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상적 참여는 왕실 내에서 그녀의 중요성과 지위를 나타내며, 신체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행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왕실 행사에서 이러한 가상적 참여 방식은 특히 중요한 지위를 가진 인물들이 여러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 못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신정왕후의 가상적 참여는 당시 조선 왕실의 사회적, 정치적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큐레이션과 미래 인문학



K-Heritage Interpreter



You

3. '1848년 왕실의 잔치'를 기록하거나 묘사한 역사적 기록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4. 그 역사적 기록물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아카이브를 알려주세요?



K-Heritage Interpreter

'1848년 왕실의 잔치'를 기록하거나 묘사한 역사적 기록물로는 무신진찬 온톨로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무신진찬의궤:1848 (Book of Royal Protocols: 1848) - 이 기록물은 1848년 왕실의 잔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잔치의 절차, 의식, 그리고 여러 측면들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 무신진찬도병 (Scroll Paintings on the Royal Feast 1848) - 이 스크롤 그림들은 잔치의 시각적 묘사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의 스크롤 그림들은 주요 행사들을 자세하고 예술적인 형태로 포착하여, 잔치의 과정과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1848년 왕실의 잔치에 대한 풍부하고 다면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텍스트 기술과 시각적 표현을 결합하여 조선 시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신정왕후는 '1848년 왕실의 잔치'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들은 다음과 같은 아카이브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무신진찬 온톨로지에 따르면:

- 국립고궁박물관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이 박물관은 '무신진찬의궤: 1848'을 포함한 1848년 왕실의 잔치와 관련된 주요 문서와 유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Gyujeonggak Archives) - 한국 역사 문서의 광범위한 컬렉션으로 알려진 규장각은 무신진찬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장서각 (Jangseogak Archives) - 이 아카이브 또한 1848년 왕실의 잔치와 관련된 역사적 문서를 포함하여 중요한 역사적 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 이 박물관은 '무신진찬도병'을 포함한 중요한 문화 유물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들은 1848년 왕실의 잔치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K-Heritage Interpreter



You

5. 순원왕후(Queen Sunwon)와 신정왕후(Queen Sinjeong)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 단계 관계까지 체크해서 직접 및 간접적인 관계를 알려주세요.



K-Heritage Interpreter

순원왕후(Queen Sunwon)와 신정왕후(Queen Sinjeong) 사이에는 직접적인 가족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 순조(King Sunjo):

순조는 순원왕후(Queen Sunwon)와 결혼하였으며, 순원왕후는 그의 왕비였습니다.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는 아들 효명세자(Crown Prince Hyomyeong)가 있었습니다.

효명세자(Crown Prince Hyomyeong):

효명세자는 신정왕후(Queen Sinjeong)와 결혼하였습니다.
효명세자와 신정왕후 사이에는 아들 헌종(King Heonjong)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순원왕후는 신정왕후의 시어머니이며, 신정왕후는 순원왕후의 며느리라는 간접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는 효명세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효명세자는 순원왕후의 아들이자 신정왕후의 남편입니다.



K-Heritage Interpr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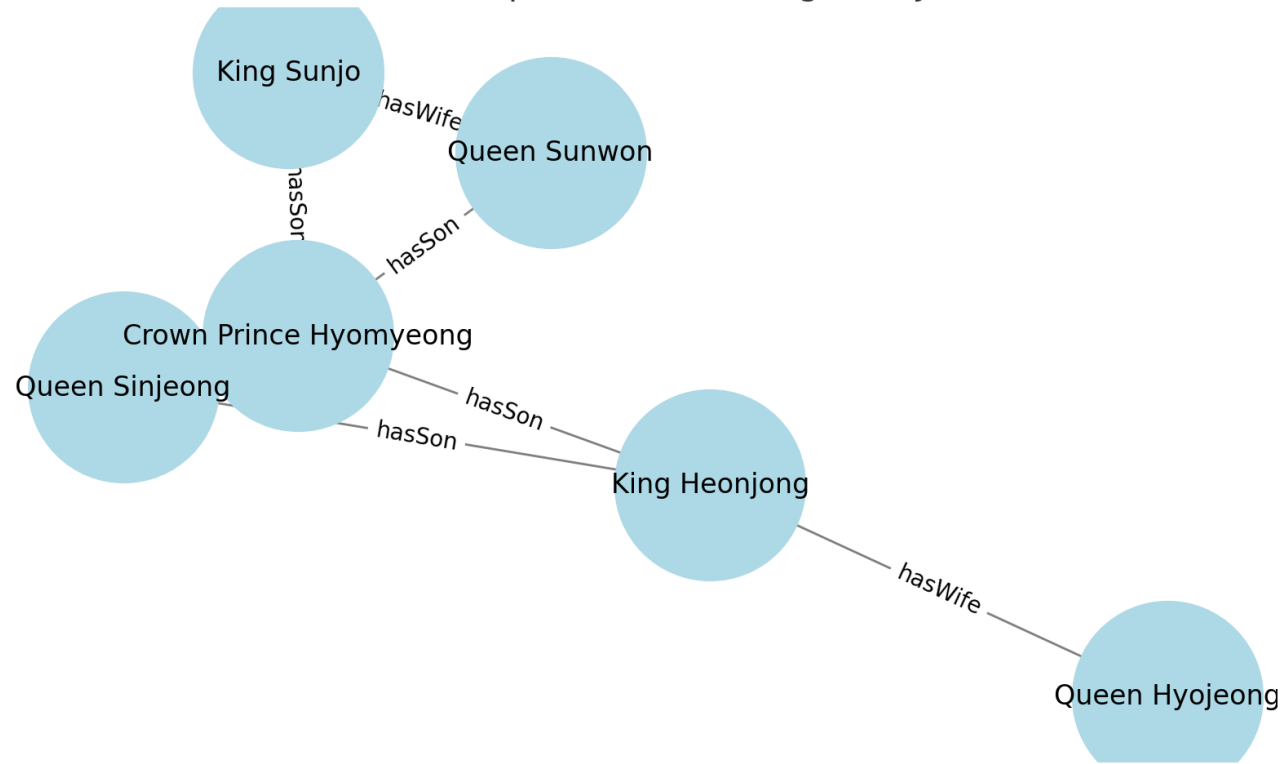
You

6. Could you display the familial relationships of the historic figures in the Musinjinchan Ontology in a network 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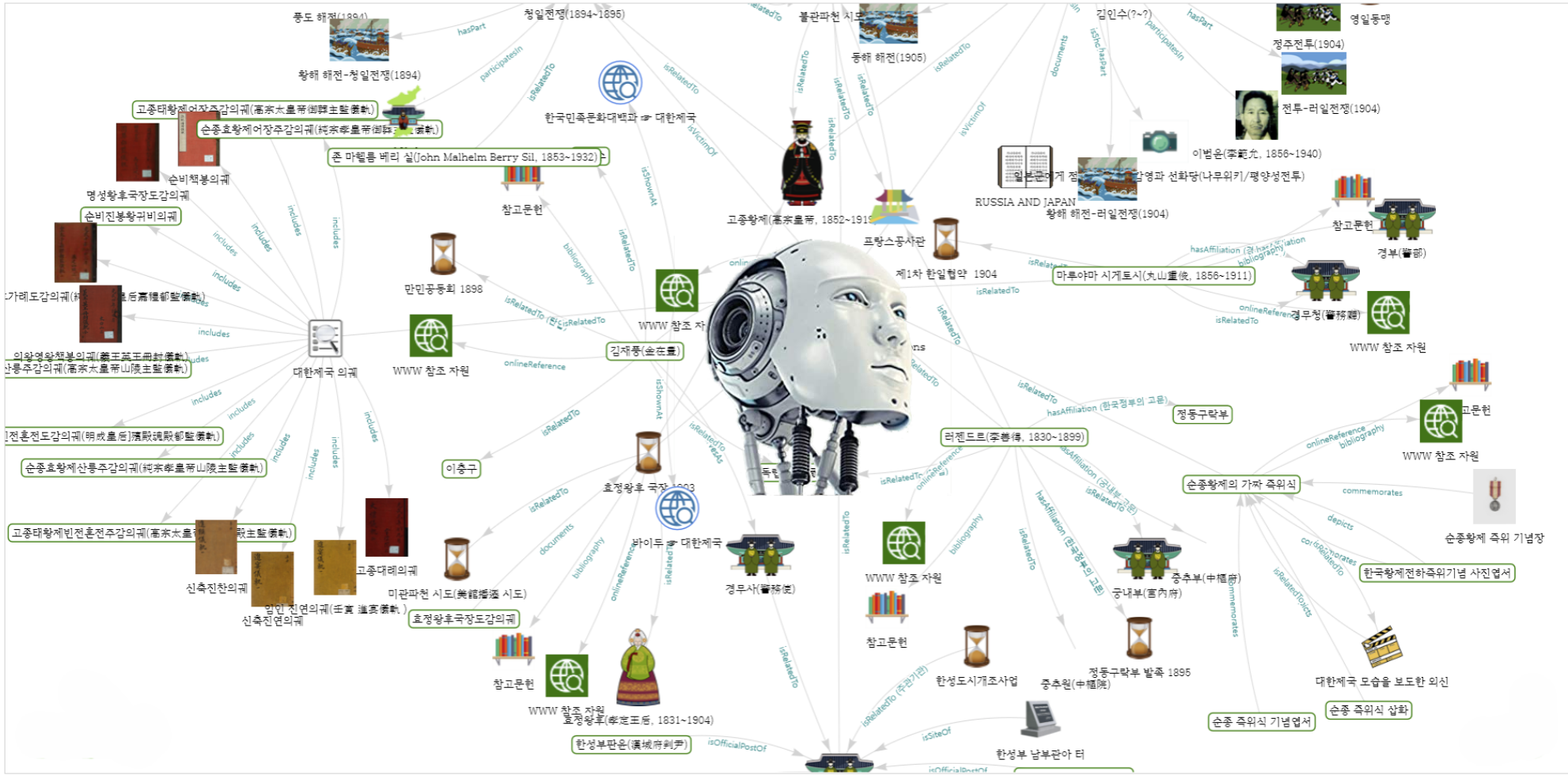
K-Heritage Interpreter

Familial Relationships of Historical Figures (Joseon Era)



디지털 큐레이션,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인문학

- 인공지능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문학 공부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검증된 '명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계적 심화학습(Deep Learning)의 내용과 방향성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특정 분야의 정리된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또는 '주어진 지식'과 인공지능 스스로 습득한 지적능력을 균형적으로 융합할 수 있게 하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미래의 인문학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인문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예술적 활동은 불가피하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 디지털 큐레이션에 의한 시맨틱 데이터 생산은 인간의 언어 속에 모호하게 담겨있던 인문학 지식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명시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일입니다.
- **인문지식의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은 '인공지능'과 동행하는 '미래 인문학'을 위한 준비입니다.**



감사합니다.